Ⅳ. 국내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리스크 관리실태 분석

1. 설문조사대상 및 설문조사내용

가. 설문조사대상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제도 하에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늦어도 2005년 2월에는 3층 보장체제 강화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비롯한 각 금융기관간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수탁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장선점 차원에서 퇴직연금시장의 진출전략 수립도 중요시되지만 수탁경쟁 치열에 따른 수탁기관의 리스크관리가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수탁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 따른 제반리스크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를 사전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와 현재 운영중인 퇴직보험과 비교하여 볼 때 리스크의 부담주체, 운용상품 제시 주체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보험회사가 어떻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즉 보험회사 측면에서 어떠한 리스크관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에서 확고한 위치와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 하에서 보험회사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기업으로는 생명보험사 12개사(외국 생명보험사 일부포함), 손해보험사 10개사 등 총 22개 보험회사를 선정하였다(<표 Ⅳ-1 >참조).

<표 Ⅳ-1>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비 고	설문조사 대상			특 징
조사대상	보험회사 (22개사)	생명보험	12개사 (외국생보사포함)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담당자
		손해보험	10개사 (외국손보사비포함)	
조사기간	2004. 2. 16~2. 28			-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출계획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보험회사,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한 보험회사, 설문지 작성에 응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이며, 특히 손해보험사에서 외국 손해보험사가 미포함된 이유는 외국 생명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였거나 지점형태 등으로 운영되어 퇴직연금시장 진출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04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방법은 사전에 설문지를 이메일을 통보한 후 직접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설문지 응답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화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나. 설문조사내용

퇴직연금 리스크의 인식 및 대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내용을 ① 퇴직연금시장 진출계획 관련항목 ② 퇴직연금 리스크인식 관련항목 ③ 퇴직연금리스크대응 관련항목 등으로 세분류하였다.

먼저 퇴직연금시장진출계획 관련항목은 진출여부 및 선호도, 확정급

여형 연금시장 및 확정기여형 연금시장 진출과 관련된 항목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수는 전체문항의 18.6%에 해당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퇴직연금 리스크인식 관련항목은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와 퇴직보험의 리스크를 어떻게 상이하게 인식하는 지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수는 전체문항의 9.3%에 해당하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리스크대응 관련항목은 운용상품설정리스크, 언더라이팅리스크, 수탁자재설정리스크, 소송(법률)리스크, 연금운용리스크 등과 관련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문항의 72.1%에 해당하는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Ⅳ-2> 설문문항의 항목별 분류

구분	세분류	문항수	비율(%)
퇴직연금시장 진출계획관련항목	진출여부 및 선호도 등	3	18.6
	확정급여형 연금시장	1	
	확정기여형 연금시장	4	
퇴직연금 리스크인식관련 항목		4	9.3
퇴직연금리스크 대응관련 항목	운용상품설정 리스크	6	72.1
	언더라이팅 리스크	8	
	수탁자재설정 리스크	7(12)	
	소송(법률) 리스크	5	
	연금운용 리스크	5	
	전체	43(12)	100.0

설문문항은 대부분 5점척도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척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5점,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1점 등으로 점수화하는 방법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산정되었다. 설문문항은 정형화된 문항설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항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소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42] 설문의 프로세스는 ①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에 과연 진출할 의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한 의

향이 있는가를 살펴본 후에 ② 종래의 리스크관리와 퇴직연금제도상의 리스크관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③ 그리고 퇴직연금 수탁자인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제반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관리를 하고 있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인식 및 대응실태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분석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설문조사분석과 더불어 보험회사를 그룹별 – 생명보험사그룹과 손해보험사그룹, 대형보험회사그룹과 중소형보험회사그룹[43] – 로 구분하여 각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한 통계처리분석으로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퇴직연금시장 진출계획 설문결과

1) 퇴직연금시장 진출여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수탁기관으로서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생명보험사는 모든 생명보험사가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중소형 손해보험사

---

42)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설문조사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퇴직연금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설문조사 선정에서 나차나는 보험회사간의 주관적 차별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43)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리스크수준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생명보험사의 경우 자산규모수준이 확연히 구분되는 상위 4개사를 대형사로 의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형생명보험사는 자산기준 상위 4개사를, 대형손해보험사는 자산기준 상위 5개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형보험회사그룹은 총 9개사이다.

2개사를 제외한 8개 손해보험사가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전체의 90.9%에 해당하는 20개사인 반면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2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표 Ⅳ-3>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의 진출(수탁)여부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진출할 계획이 있다	4	8	5	3	9	11	90.9%
진출할 계획이 없다	0	0	0	2	0	2	9.1%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의 90% 이상은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의 선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시장 진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험회사를 비롯한 타금융기관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수탁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퇴직연금제도 선호여부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한 계획이 있는 경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보험회사의 특성상 80%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보험회사는 전체 보험회사의 20.0%인 4개사인 것으로 나타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룹별로 보면 대형 생명보험사그룹 모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은 8개사중 6개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형 손해보험사 및 중소형 손해보험사 모두 1개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4>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선호도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DB형 퇴직연금제	4	6	4	2	8	8	80.0%
DC형 퇴직연금제	0	2	1	1	1	3	20.0%

3) DB형 퇴직연금시장 진출대비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진출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한 결과(<표Ⅳ-5> 참조),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응답한 보험회사수는 예상외로 적은 10개 보험회사, 즉 전체 보험회사의 5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5> DB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위한 대비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준비가 되어 있다	3	3	4	0	7	3	50.0%
준비가 부족 하다	1	5	1	3	2	8	50.0%

특징적인 것은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은 8개 생명보험사 중 5개 생명보험사가,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은 3개 손해보험사중 3개사 모두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은 4개 생명보험사중 1개 생명보험사만, 대형 손해보험사그룹은 5개 손해보험사 중 1개 손해보험사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소형 보험회사의 준비정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형 보험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준비부족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따른 많은 비용부담(퇴직연금제도의 규모경제이론 적용) 등의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4) DC형 퇴직연금시장 진출

가) DC형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출계획 여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보험회사의 85.0%에 해당하는 17개 보험회사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Ⅳ-6 >참조). 반면에 진출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전체 보험회사의 15.0%에 해당하는 3개 보험회사인 것으로 조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진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Ⅳ-6> DC형 퇴직연금시장 진출계획 여부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있다	4	7	5	1	9	8	85.0%
없다	0	1	0	2	0	3	15.0%

진출계획이 없는 보험회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개 중소형 생명보험사, 2개 중소형손해보험사로 모두 중소형 보험회사가 진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진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대형 손해보험사보다는 중소형 손해보험사가 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노하우 부족과 더불어 진출에 따른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DC형 퇴직연금시장진출을 위한 준비여부

만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진출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보험회사의 70.6%인 12개 보험회사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응답함으로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진출준비 50.0%보다 약 20.0% 높은 준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탁기관 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확정급여형 진출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표 Ⅳ-7> DC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의 준비여부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준비가 되어 있다	3	7	1	1	4	8	70.6%
준비가 부족 하다	1	0	4	0	5	0	29.4%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대형 보험회사 9개사 중 4개 보험회사만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형 보험회사는 8개사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 보험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위주의 진출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중소형 보험회사는 상품설계시스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출보다는 특화된 서비스 진출이 가능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위주의 진출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다) DC형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출부문

확정기여형 진출계획이 있는 17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시 어느 부문에 진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17개 보험회사중 2개사인 11.8%만 자산관리업무부문만 특화하여 진출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 보험회사의 88.2%인 15개 보험회사

가 전부문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진출은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차원에서 자사의 노하우를 고려하지 않는 무계획적 진출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보다는 대형 보험회사에서 보다 뚜렷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표 Ⅳ-8> DC형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출부문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모든 부문	4	5	5	1	9	6	88.2%
사무관리업무부문	0	0	0	0	0	0	0.0%
자산관리업무부문	0	2	0	0	0	2	11.8%

라) DC형 퇴직연금시장 미진출이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3개 보험회사중 2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능력의 취약, 1개 보험회사가 확정기여형 노하우 부족 등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시장 미진출사유라고 응답하였다. 단지 3개 보험회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미진출 이유이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입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은행 등 타금융기관과 대비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자산운용능력의 취약은 운용수익률의 제고에 마이너스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진출 노하우가 전무한 상태에서 보험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진출과는 달리 진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결국 자산운용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선진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사례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지금부터라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전략을 체계적으로 수

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표 Ⅳ-9> DC형 퇴직연금시장 미진출이유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자산운용능력의 취약	0	0	2	0	2	1
수탁자책임의 과중	0	0	0	0	0	1
고정비부담 가중	0	0	0	0	0	0
확정기여형 노하우 부족	0	0	1	1	1	1
DC형연금 시장협소 예상	0	0	0	0	0	0
일괄 부과서비스 제공 부족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마) 은행 등과의 경쟁력 취약 분야

은행 등과 비교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연 어느 부문이 경쟁력이 취약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은행 등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한 결과,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정리하면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은행 등과 대비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기업과의 거래관계	6	1	8	0	63.6	4.5
자산운용 능력부족	2	3	1	5	13.6	36.4
부가서비스다양성 부족	0	4	0	2	0.0	27.3
수탁수수료의 경쟁력부족	0	0	0	0	0.0	0.0
근로자 및 기업 인지도	1	2	0	2	4.5	18.2
운용상품제공의 다양성	3	2	1	1	18.2	13.6
기타	0	0	0	0	0.0	0.0

분석결과, <표 Ⅳ-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과 비교시 상대적

으로 취약한 1순위 부문에서는 ① 기업과의 거래관계(63.6%) ② 운용상품제공의 다양성(18.2%) ③ 자산운용능력부족(13.6%) ④ 근로자 및 기업인지도(4.5%) 순인 것으로, 취악한 2순위 부문에서는 ① 자산운용능력부족(36.4%) ② 부가서비스의 다양성부족(27.3%) ③ 근로자 및 기업인지도(18.2%) ④ 운용상품제공의 다양성(13.6%) ⑤ 기업과의 거래관계(4.5%)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회사입장에서는 기업과의 대출관계 및 주거래은행제도활용에 의한 은행의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에게 다양한 운용상품을 제시할 수 없는 능력, 자산운용능력 부족 등을 보험회사의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더불어 운용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타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의한 자산운용능력의 향상 제고가 최대현안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퇴직연금 리스크인식 설문결과

1) 퇴직보험과의 리스크정도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와 퇴직보험의 운용리스크를 비교하여 볼 때 보험회사(수탁자)의 입장에서 어느 운용리스크가 보다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보험회사의 70.0%인 14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가 퇴직보험의 운용리스크보다 크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가 퇴직보험의 운용리스크보다 크지 않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전체 보험회사의 30.0%인 6개 보험회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가 퇴직연금의 운용리스크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식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표 Ⅳ-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손해보험사그룹은 5개 손해보험사중 80%인 4개사가,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은 3개 손해보험사 중 100% 손해보험사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가 퇴직보험의 운용리스크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은 4개 생명보험사중 50%인 2개사,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은 8개 생명보험사중 62.5%인 5개사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가 퇴직보험의 운용리스크보다 큰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인식의 정도는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1>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인식정도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퇴직연금이 퇴직보험보다 리스크가 크다	2	5	4	3	6	8	70.0%
퇴직연금이 퇴직보험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다	2	3	1	0	3	3	30.0%

2)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 인식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때 리스크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보험회사중 65.0%에 해당하는 13개 보험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리스크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 보험회사중 35.0%에 해당하는 7개만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보다 리스크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수탁기관인 보험회사의 수탁자책임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시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시에 보다 증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은 대형보험회사 및 중소형보험회사 모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리스크부 담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리스크 부담과 대비, 거의 2배수준에 달한다고 보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표 Ⅳ-12> DB형 및 DC형의 운용리스크 인식정도 비교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DB형이 리스크부담이 크다	2	3	1	1	3	4	35.0%
DC형이 리스크부담이 크다	2	5	4	2	6	7	65.0%

3)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 대비 정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얼마나 리스크관리에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전체보험회사의 45.0%에 해당하는 9개사,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전체보험회사의 55.0%에 해당하는 11개사인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에 거의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보험회사가 중소형보험회사보다 운용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에 속하는 3개사 손해보험사 모두는 전혀 운용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손해보험사 위주의 운용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Ⅳ-13>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 대비 정도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운용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3	4	2	0	5	4	45.0%
운용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	1	4	3	3	4	7	55.0%

4) 보험회사 리스크 중 중점리스크 여부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리스크중에서 귀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리스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한 결과, <표 Ⅳ-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점리스크(1순위기준)로는 ① 운용상품설정리스크(50.0%) ② 수탁자재설정리스크(25.0%) ③ 연금운용(장수)리스크(15.0%) ④ 언더라이팅리스크(10.0%)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4> 보험리스크중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리스크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운용상품설정리스크	6	3	4	4	50.0	35.0
언더라이팅리스크	1	4	1	1	10.0	25.0
수탁자재설정리스크	3	4	2	3	25.0	35.0
소송(법률)리스크	0	0	0	0	0.0	0.0
연금운용(장수)리스크	2	1	1	0	15.0	5.0
기타	0	0	0	0	0.0	0.0

따라서 보험회사는 향후 운용상품 설정리스크나 수탁자재설정 리스크 등에 리스크관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표 Ⅳ-14 >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송(법률)리스크를 보험회사의 중점리스크로 모든 보험회사가 전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보다 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송(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 퇴직연금 리스크대응 설문결과

1) 운용상품설정리스크

운용상품설정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5점척도방식에 의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Ⅳ-15>와 같다. <표Ⅳ-15>에서 보면 변수 I-6(확정금리형 대체상품개발 및 타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여부)의 평균값이 2.86인 것으로 나타나 6개의 변수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변수 I-5(근로자제시상품의 예정이율 적정성분석)은 가장 높은 평균값인 3.73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문항의 평균값은 3.2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운용상품설정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방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5> 운용상품설정 리스크 대응 설문조사 분석결과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GIC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개발여부(Ⅰ-1)	3.23	5.00	3.25	2.60	2.40
시장금리를 감안한 확정금리형 상품개발추진여부(Ⅰ-2)	3.41	4.25	3.13	4.40	2.20
시장금리예측 및 연금상품개발계획수립(Ⅰ-3)	3.14	4.25	2.63	4.20	2.00
근로자라이프사이클에 부합한 연금상품지급(Ⅰ-4)	2.95	4.25	2.63	3.40	2.00
근로자제시상품의 예정이율 적정성 분석(Ⅰ-5)	3.73	4.50	3.50	4.20	3.00
확정금리형 대체상품개발 및 타금융권과의 전략적제휴여부(Ⅰ-6)	2.86	3.75	2.63	3.40	2.00
전체 문항 평균	3.22	4.33	2.96	3.70	2.27

특징적인 것인 보험회사 그룹별로 볼 때,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의 전체문항 평균값이 타그룹의 평균값에 비해 가장 낮은 2.27의 평균값을 보여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의 운용상품설정리스크 대응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의 평균값도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 2.27 다음으로 낮은 평균값 2.96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문항 평균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형 보험회사의 운용상품설정리스크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변수 I-1의 경우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은 상품의 경쟁력강화와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차원에서 GIC 등의 상품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손해보험사(대형 손해보험사그룹 및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는 대체로 퇴직연금제도 운용상품개발에 대한 준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변수 I-2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대형 보험회사그룹과 중소형보험회사그룹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형 보험회사그룹은 시장금리를 감안한 확정금리형 상품개발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변수 I-2의 분석결과와 변수 I-3에 대한 분석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중소형 보험회사그룹의 평균값이 대형보험회사그룹의 평균값에 비해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분석결과, 특징적인 것은 변수 I-6(확정금리형 대체상품개발 및 타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여부)의 평균값이 전체항목 평균값에 비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 생명보험사의 평균값도 3.7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보험회사는 확정금리형 대체상품 개발 및 타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운용상품설정리스크 대응 및 관리에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 언더라이팅 리스크

보험회사가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중요시되는 리스크는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리스크 대응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5점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평균값을 산정하면 <표 Ⅳ-16>과 같다. 언더라이팅 리스크 대응관련 설문문항수(변수)는 총 8

개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표 Ⅳ-16> 언더라이팅 리스크 대응 설문조사 분석결과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타금융권에 비해 강점이 있는 특화된 부가서비스에 진출할 계획(Ⅱ-1)	3.45	4.25	2.88	4.20	3.00
퇴직연금의 예상수탁수수료를 감안하여 수익예측분석실시(Ⅱ-2)	3.73	4.50	3.75	4.20	2.60
진출기업대상 별도의 언더라이팅 관리 시스템설정(Ⅱ-3)	2.36	3.25	2.13	2.20	2.20
통합서비스체제구축으로 인프라 비용을 점진적으로 경감(Ⅱ-4)	3.27	4.25	3.13	3.60	2.40
기록관리비용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공동개발 및 위탁(Ⅱ-5)	3.32	3.50	3.88	3.40	2.20
법인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Ⅱ-6)	2.77	4.50	2.38	3.00	1.80
기업정보분석을 바탕으로 목표시장에 접근, 비용효율화도모(Ⅱ-7)	3.36	4.00	3.50	4.00	2.00
경쟁력이 없는 사무관리업무부문은 과감히 재위탁(Ⅱ-8)	2.45	2.25	2.88	2.60	1.80
전체 문항 평균	3.09	3.81	3.06	3.40	2.25

첫째, 전체문항의 평균값은 3.09인 것으로 나타나 운용상품리스크 대응(평균값 3.22)보다 언더라이팅리스크 대응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을 제외하고 그룹별 전체문항 평균값도 운용상품설정리스크의 그룹별 전체문항 평균값이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운용상품설정리스크에서는 대형생명보험사그룹, 대형손해보험사그룹, 중소형손해보험사그룹의 전체문항평균값이 각각 4.33, 3.70, 2.27인데 반해, 언더라이팅 리스크에서

는 각각 3.81, 3.40, 2.25인 것으로 조사되어 운용상품설정리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더라이팅리스크의 대응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비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성장만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크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바 크다.

둘째, 변수별로 보면 변수 Ⅱ-1(타금융권에 비해 강점이 있는 특화된 부가서비스에 진출할 계획)의 평균값은 3.45인데 반해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과 중소형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은 각각 2.88, 3.00인 것으로 조사되어 변수Ⅱ-1의 전사평균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형보험회사의 대응이 대형보험회사의 대응보다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변수 Ⅱ-2(퇴직연금의 예탁수탁수수료를 감안하여 수익예측분석 실시)에서도 대체로 대형보험회사와 중소형보험회사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Ⅱ-3(진출기업대상 별도의 언더라이팅 관리시스템 설정)의 평균값은 각 변수의 전사평균값에 비해 가장 낮은 2.36을 나타냄으로써 대부분의 보험회가가 진출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언더라이팅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기업별에 따른 언더라이팅 계획수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변수 Ⅱ-5(기록관리비용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공동개발 및 위탁)에서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은 3.88인데 반해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은 3.5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의 경우 자금여력(solvency margin)이 풍부한데 반하여,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의 경우 지급여력 부족으로 공동개발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데에 오는 차이라 할 수 있다. 변수 Ⅱ-6(법인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구축)의 전사평균값이 2.77은 변수Ⅱ-3, 변수 Ⅱ-8 다음으로 낮은 평균값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은 1.80으로 법인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구축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언더라이팅체제 및 준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Ⅱ-8(경쟁력이 없는 사무관리업무부문은 과감히 재위탁)의 전사평균값은 2.45이며, 대형생명보험사그룹, 중소형생명보험사그룹, 대형손해보험사그룹,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은 각각 2.25, 2.88, 2.60, 1.80 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은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사무관리업무부문까지 수탁하려는 경향이 높아 언더라이팅리스크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대형생명보험사그룹, 대형손해보험사그룹,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 순으로 언더라이팅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형보험회사보다는 대형보험회사가,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언더라이팅리스크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수탁자재설정리스크

수탁기관인 보험회사는 거의 매년 사용주자기업)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수탁기관의 운용수익률성과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할 것인가를 일정한 틀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즉 수탁기관을 평가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탁기관으로서 재설정되지 않을 수 있는 수탁자재설정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평가는 대체로 운용수익률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평가 및 포트폴리오의 구축, 운용프로세스, 인재, 투자철학 등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험회사는 과연 어느 정도 수탁자재설정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가를 보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Ⅳ-17 >과 같다.

<표 Ⅳ-17> 수탁자 재설정리스크 대응 설문조사분석결과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연기금자산운용인력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 (Ⅲ-1)		2.23	3.25	2.25	2.20	1.40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력(Ⅲ-2)		1.14	1.50	1.00	1.20	1.00
책임준비금적정성을 고려한 자산운용기법(연금ALM기법)구축(Ⅲ-3)		2.45	3.00	2.25	3.60	1.20
별도의 자산운용계획과 자산운용기본전략 수립(Ⅲ-4)		2.50	4.00	2.13	3.00	1.40
별도의 자산운용사 기설립 또는 설립 및 전략적제휴를 계획(Ⅲ-5)		3.05	4.00	2.88	3.40	2.20
정량적 평가항목 평균		2.27	3.15	2.18	2.68	1.44
포트폴리오구축 (Ⅲ-6)	Ⅲ-6-1	2.55	4.00	2.25	2.60	1.89
	Ⅲ-6-2	3.00	3.50	3.00	2.80	2.80
	Ⅲ-6-3	3.09	3.75	2.88	3.20	2.80
운용프로세스 (Ⅲ-7)	Ⅲ-7-1	3.27	4.00	2.75	3.80	3.00
	Ⅲ-7-2	3.36	4.50	2.75	3.60	3.20
	Ⅲ-7-2	3.14	4.00	2.50	3.80	2.80
인재 (Ⅲ-8)	Ⅲ-8-1	3.09	4.25	2.63	3.20	2.80
	Ⅲ-8-2	2.86	3.75	2.50	3.20	2.40
	Ⅲ-8-3	2.68	3.50	2.38	3.00	2.20
투자철학 (Ⅲ-9)	Ⅲ-9-1	2.91	4.00	2.50	3.40	2.20
	Ⅲ-9-2	2.91	3.75	2.63	3.40	2.20
	Ⅲ-9-3	2.77	3.50	2.63	3.20	2.00
정성적 평가항목 평균		2.97	3.88	2.61	3.27	2.47
전체 항목 가중평균		2.76	3.66	2.46	3.09	2.19

분석 결과, 첫째 정량적 평가항목 평균값은 전 보험회사가 2.27,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이 3.15,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2.18, 대형 손해보험사그룹이 2.68,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이 1.44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어 정량적 평가에 대한 대응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전그룹이 정량적 평가항목 평균값이 대체로 3.00 이

하라는 점과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의 경우는 평균값이 1.44로 거의 정량적 평가를 제고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성적 평가항목은 총 12개항목(12개변수)로 이루어졌으며, 각 세부항목(포트폴리오구축, 운용프로세스, 인재, 투자철학)마다 다시 3개변수로 구성되었다. 정성적 평가항목 평균값을 보면 전 보험회사가 2.97, 대형생명보험사그룹이 3.88, 중소형생명보험사그룹이 2.61, 대형손해보험사그룹이 3.27, 중소형손해보험사그룹이 2.47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량적 평가의 대응에 비해 정성적 평가의 대응이 다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특성상(설계사교육 등에서의 우위) 정성적 평가의 대응이 정량적 평가의 대응보다 용이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성적 평가항목중 변수 Ⅲ-6-1(투자철학, 운용프로세스와 정합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의 평균값이 2.55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변수 Ⅲ-7-2(의사결정을 행하기 위한 필요한 스탭 배치)의 평균값이 3.36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으로 보이고 있어 보험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용프로세스와 정합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성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보면 포트폴리오 구축 및 운용프로세스보다 인재 양성 및 투자철학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정량적인 평가항목 및 정성적인 평가항목 모두를 고려한 전체 항목을 가중평균한 결과, 전사 평균값은 2.76, 대형생명보험사그룹이 3.66, 중소형생명보험사그룹이 2.46, 대형손해보험사그룹이 3.09, 중소형손해보험사그룹이 2.19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보험회사와 중소형보험회사간의 수탁자재설정리스크 대응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송(법률)리스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시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소송(법률)리스크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소송리스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적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Ⅳ-18 >은 소송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 대응실태 등을 요약·정리한 표이다. <표 Ⅳ-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문항(전체변수)의 평균값은 여타리스크의 평균값 보다 가장 적은 2.25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철저한 소송리스크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 Ⅳ-18> 소송(법률) 리스크 대응 설문조사분석결과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별도의 컴플라이언스체제 구축 (Ⅳ-1)	2.00	3.00	2.13	1.60	1.40
보험회사 수탁자책임에 관한 교육추진 (Ⅳ-2)	2.23	3.75	2.00	2.40	1.20
근로자를 위한 투자교육프로그램(설명의무 등)개발 추진(Ⅳ-3)	2.32	4.00	2.25	2.20	1.20
수탁자책임에 대한 임원 및 CEO의 인식여부(Ⅳ-4)	2.50	4.00	2.38	2.20	1.80
보험계리사 교육 등 제3자적 감시기능의 강화(Ⅳ-5)	2.18	3.75	1.88	2.40	1.20
전체문항 평균	2.25	3.70	2.13	2.16	1.36

변수 Ⅳ-1(평균값 2.00), 변수 Ⅳ-5(평균값 2.18), 변수 Ⅳ-2(평균값 2.23), 변수 Ⅳ-3(평균값 2.32), 변수 Ⅳ-4(2.50) 순으로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탁자책임을 위한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변수의 평균값이 3.00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따른 소송(법률)리스크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소송리스크 대응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은 대체로 소송(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과 대응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전체문항 평균값 3.70),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은 전체문항의 평균값이 1.36으로 소송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둘째, 타 리스크대응 결과와 유사하게 소송리스크에서도 대형보험회사와 중소형보험회사와의 리스크대응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리스크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항목에서 소송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평균값 2.0 내외), 특히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의 경우는 평균값이 1.36으로 나타나 향후 철저한 소송리스크 대응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보험회사 경영의 기본이 되는 변수 Ⅳ-5(보험계리사 교육 등 제3자적 감시기능강화)에서 대형생명보험사그룹을 제외한 전 그룹이 보험계리사 교육 및 양성에 의한 소송리스크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리스크는 여타 리스크와 달리 연금규제의 완화추세와 맞물려 점점 증대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도 수탁기관의 기관투자자 역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인 보험회사는 향후 수탁자책임의무 위반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응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5) 연금운용(장수)리스크

연금운용(장수)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 대응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표 Ⅳ-19>에서 보면 변수Ⅴ-1, 변수Ⅴ-2, 변수 Ⅴ-3, 변수 Ⅴ-4, 변수 Ⅴ-5 각각의 전사 평균값은 2.64, 1.68, 2.45, 2.95, 2.32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변수 Ⅴ-2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변수 Ⅴ-4

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스코어링시스템 등 연금역선택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로자의 속성에 부합한 연금상품개발은 연금운용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19> 연금운용 리스크 대응 설문조사분석결과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연금상품에 대한 별도의 손익예측시스템구축시도 (Ⅴ-1)	2.64	4.00	2.88	2.60	1.20
스코어링시스템 등 연금역선택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Ⅴ-2)	1.68	2.25	1.63	2.00	1.00
연금상품개발의 적정성 측정 (시나리오 별에 따른 예정이율 검증)(Ⅴ-3)	2.45	3.25	2.63	2.40	1.60
근로자의 속성에 부합한 연금상품개발(Ⅴ-4)	2.95	4.50	2.88	3.40	1.40
연금상품개발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전문기관과의 제휴추진 (Ⅴ-5)	2.32	3.75	2.50	2.00	1.20
전체문항 평균	2.41	3.55	2.50	2.48	1.28

또한 전체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2.41, 전체문항에 대한 대형생명보험사그룹,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 대형손해보험사그룹, 중소형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은 각각 3.55, 2.50, 2.48, 1.28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연금운용리스크의 대응은 ① 전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② 중소형손해보험사그룹이 여타그룹보다 연금운용리스크수준이 낮으며 ③ 대형생명보험사그룹의 경우 평균값에 훨씬 초과하는 연금운용리스크수준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통계분석결과

가. 운용상품설정리스크

운용상품설정 리스크와 관련된 6개문항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통계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Ⅳ-20>과 같다.

<표 Ⅳ-20> 운용상품설정 리스크 대응 통계 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GIC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개발여부(Ⅰ-1)	3.960	0.047**	1.867	0.172
시장금리를 감안한 확정금리형 상품개발추진여부(Ⅰ-2)	0.030	0.862	7.962	0.005**
시장금리예측 및 연금상품개발계획수립(Ⅰ-3)	0.056	0.813	9.663	0.002**
근로자라이프사이클에 부합한 연금상품지급(Ⅰ-4)	0.332	0.565	7.348	0.007**
근로자제시상품의 예정이율 적정성 분석(Ⅰ-5)	0.060	0.807	4.975	0.026**
확정금리형 대체상품개발 및 타금융권과의 전략적제휴여부(Ⅰ-6)	0.332	0.565	4.101	0.043**
전 체	1.262	0.261	10.107	0.002**

주: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각 변수를 Kruskal-Wallis 분석[44]에 의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독립변수) 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독립변수)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살펴본 결과, 변수 Ⅰ-1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5] 이에

44) 비모수적방법에 의해 둘이상의 모평균이 서로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검증하는 분석방법임.

반해 변수 Ⅰ-2부터 변수 Ⅰ-6까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는 변수 Ⅰ-1을 제외한 모든 변수 즉 변수Ⅰ-2, 변수Ⅰ-3, 변수Ⅰ-4, 변수Ⅰ-5, 변수Ⅰ-6 등 5변수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운용상품설정리스크의 경우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는 대체로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형보험회사의 운용상품설정리스크관리 대응수준이 중소형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소형 보험회사는 운용상품설정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 언더라이팅리스크

언더라이팅 리스크대응에 대한 통계분석결과(<표 Ⅳ-21> 참조)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운용상품설정리스크의 통계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는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볼 때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는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변수별로 볼 때 변수 Ⅱ-3(진출기업대상 별도의 언더라이팅관리시스템설정), 변수 Ⅱ-5(기록관리비용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공동개발 및 위탁), 변수Ⅱ-8(경쟁력이 없는 사무관리업무부문은 과감히 재위탁) 등 3개변수에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간 뿐만 아니

45) 통계분석은 각 문항에 대해 생명보험사그룹/손해보험사그룹, 대형보험회사그룹/중소형보험회사 그룹별로 리스크관리수준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라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에서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중소형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① 타금융권에 비해 강점이 있는 특화된 부가서비스 진출계획수립 ② 퇴직연금의 예상수탁수수료를 감안하여 수익예측분석 실시 ③ 통합서비스체제 구축으로 인프라비용을 점진적으로 경감 ④ 법인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표 Ⅳ-21> 언더라이팅 리스크 대응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타금융권에 비해 강점이 있는 특화된 부가서비스에 진출할 계획(Ⅱ-1)	0.645	0.422	7.997	0.005**
퇴직연금의 예상수탁수수료를 감안하여 수익예측분석실시(Ⅱ-2)	1.077	0.299	3.580	0.059*
진출기업대상 별도의 언더라이팅 관리 시스템설정(Ⅱ-3)	0.711	0.399	1.296	0.255
통합서비스체제구축으로 인프라비용을 점진적으로 경감(Ⅱ-4)	0.980	0.322	4.160	0.041**
기록관리비용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공동개발 및 위탁(Ⅱ-5)	2.367	0.124	0.097	0.755
법인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Ⅱ-6)	1.105	0.293	6.459	0.011**
기업정보분석을 바탕으로 목표시장에 접근, 비용효율화도모(Ⅱ-7)	1.160	0.282	7.434	0.006**
경쟁력이 없는 사무관리업무부문은 과감히 재위탁(Ⅱ-8)	1.227	0.268	0.011	0.916
전체	2.215	0.137	6.825	0.009**

주: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다. 수탁자재설정리스크

수탁자재설정리스크에 대해 Kruskal-Wallis 분석으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독립변수)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독립변수)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Ⅳ-21>과 같다. 여기에서는 ① 전반적인 검증결과, ② 정량적 검증결과, ③ 정성적 검증결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정량적 검증결과와 정성적 검증결과를 종합한 전체적차원에서의 검증결과를 보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는 리스크관리 수준차이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에는 리스크관리수준차이가 존재함으로써 특히 중소형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량적 검증결과, 전체적으로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에는 뚜렷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간에는 리스크관리수준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변수 Ⅲ-1(연기금자산운용인력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의 경우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 모두 수준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변수 Ⅲ-2(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력) 및 변수 Ⅲ-5(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별도의 자산운용사 설립 및 전략적 제휴) 등에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 모두 수준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성적 검증결과, 전체적으로 정량적 검증결과와 같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는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는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별로 볼 때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변수로는 변수Ⅲ-6-2(의도된 리스크를 취하고 있으며 의도되지 않은 리스크는 취하고 있지 않다), 변수Ⅲ

-6-3(포트폴리오에 의한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행하고 있다), 변수Ⅲ-8-2(조직적 운용을 계속하여 수행할 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등 3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22> 수탁자 재설정리스크 대응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연기금자산운용인력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 (Ⅲ-1)		3.46	0.063*	2.803	0.094*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력(Ⅲ-2)		0.124	0.725	4.444	0.35
책임준비금적정성을 고려한 자산운용기법(연금ALM기법) 구축(Ⅲ-3)		0.042	0.837	6.580	0.010**
별도의 자산운용계획과 자산운용기본전략 수립(Ⅲ-4)		1.041	0.308	7.589	0.006**
운용수익률제고를 위한 별도의 자산운용사설립 및 전략적제휴(Ⅲ-5)		0.019	0.891	2.246	0.134
정량적 평가		0.151	0.698	5.809	0.016**
포트폴리오구축 (Ⅲ-6)	Ⅲ-6-1	1.679	0.195	5.193	0.023**
	Ⅲ-6-2	1.294	0.255	0.000	1.000
	Ⅲ-6-3	0.118	0.731	0.821	0.365
운용프로세스 (Ⅲ-7)	Ⅲ-7-1	0.225	0.635	3.307	0.069*
	Ⅲ-7-2	0.005	0.946	3.184	0.074*
	Ⅲ-7-2	0.374	0.541	5.635	0.018**
인재 (Ⅲ-8)	Ⅲ-8-1	0.165	0.685	3.295	0.069*
	Ⅲ-8-2	0.041	0.839	2.605	0.107
	Ⅲ-8-3	0.074	0.786	3.705	0.054*
투자철학 (Ⅲ-9)	Ⅲ-9-1	0.168	0.682	6.184	0.013**
	Ⅲ-9-2	0.259	0.611	4.843	0.028**
	Ⅲ-9-3	0.379	0.538	4.033	0.045**
정성적 평가		0.245	0.620	4.160	0.041**
전체		0.009	0.923	4.638	0.031**

주: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라. 소송(법률)리스크

소송(법률)리스크에 대한 통계분석결과(<표 Ⅳ-22>참조), ① 전체적으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 모두 10%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 수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Ⅳ-23> 소송(법률) 리스크 대응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별도의 컴플라이언스체제 구축(Ⅳ-1)	4.698	0.030**	1.054	0.305
보험회사 수탁자책임에 관한 교육추진(Ⅳ-2)	0.958	0.328	5.797	0.016**
근로자를 위한 투자교육프로그램(설명의무 등)개발 추진(Ⅳ-3)	2.680	0.102	3.364	0.067*
수탁자책임에 대한 임원 및 CEO의 인식여부(Ⅳ-4)	2.226	0.136	2.283	0.131
보험계리사 교육 등 제3자적 감시기능의 강화(Ⅳ-5)	1.587	0.208	6.154	0.013**
전 체	2.783	0.095*	3.710	0.054*

주: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② 변수 Ⅳ-1(별도의 컴플라이언스체제 구축)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변수Ⅳ-2(보험회사 수탁자책임에 관한 교육추진)는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변수 Ⅳ-3(근로자를 위한 투자교육프로그램 개발추진)은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 변수 Ⅳ-5(보험계리사 교육 등 제3자적 감시기능의 강화)는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에서만 리스크관리수준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간, 그리고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 모두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변수Ⅳ-4(수탁자책임에 대한 임원 및

CEO의 인식여부)만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수 Ⅳ-4의 경우는 보험업계 전체가 거의 동일한 리스크관리수준(실질적으로는 모든 보험회사가 낮은 리스크관리수준 시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소송(법률)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보험업계의 공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마. 연금운용리스크

연금운용리스크에 대해 Kruskal-Wallis 분석으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독립변수)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독립변수)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Ⅳ-24>와 같다.

<표 Ⅳ-24> 연금운용 리스크 대응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연금상품에 대한 별도의 손익예측시스템구축시도 (Ⅴ-1)	6.088	0.014**	3.048	0.081*
스코어링시스템 등 연금역선택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Ⅴ-2)	0.945	0.331	4.786	0.029**
연금상품개발의 적정성측정(시나리오별에 따른 예정이율검증)(Ⅴ-3)	3.189	0.074*	1.239	0.266
근로자의 속성에 부합한 연금상품개발(Ⅴ-4)	2.632	0.105	5.907	0.015**
연금상품개발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전문기관과의 제휴추진(Ⅴ-5)	5.565	0.018**	2.762	0.097*
전 체	5.529	0.019**	4.753	0.029**

주: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검증결과, 전체적으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그리고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변수 Ⅴ-1(연금상품에 대한 별도의 손익예측시스템구축시도) 및 변수 Ⅴ-5

(연금상품개발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전문기관과의 제휴추진)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모두에서 연금운용리스크 관리수준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변수 Ⅴ-2(스코어링시스템 등 연금 역선택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변수 Ⅴ-4(근로자의 속성에 부합한 연금상품개발)는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서만 연금운용리스크 관리수준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변수 Ⅴ-3은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이 아닌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여 여타변수와 차이가 존재한다.

3. 분석상의 의미 및 한계점

퇴직연금 리스크인식 및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분석상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회사는 수탁기관으로 퇴직연금시장에 90% 이상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80% 이상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위해 50%인 10개 보험회사만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진출을 위해 약 70%인 12개 보험회사만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체계적인 대비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특히 17개 보험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출계획이 있으며, 이들 보험회사중 88.2%인 15개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전사업부문에 진출할 계획이 있어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미진출사유로는 자산운용능력의 취약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의 노하우 부족 등

을 들고 있으며 은행과의 경쟁력 취약분야로 63.6%가 기업의 지배력 부족, 18.2%가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한계, 13.6%가 자산운용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어 보험회사입장에서는 기업과의 대출관계 및 주거래은행제도활용에 의한 은행의 퇴직연금시장 진출 등을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넷째, 퇴직연금 리스크인식 분석결과, 70% 이상의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이 퇴직보험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5.0%인 13개 보험회사가 확정기여형이 확정급여형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45%만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볼 때 보험업계의 리스크 인식을 높지만 리스크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보험회사는 운용설정리스크, 수탁자재설정리스크, 연금운용리스크, 언더라이팅리스크 순으로 리스크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운용설정리스크를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본 반면, 소송(법률)리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로 보아, 소송(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퇴직연금 리스크대응 분석결과, ① 운용상품설정리스크의 경우, 전체변수의 평균값이 3.22로 나타나 대체로 적극적인 리스크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이 2.27로 여타그룹보다 리스크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② 언더라이팅리스크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소형보험회사보다는 대형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언더라이팅리스크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③ 수탁자재설정리스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성적 평가에의 대응이 정량적 평가에의 대응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보험회사와 중소형보험회사간의 차이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④ 소송리스크의 경우 여타리스크의 평균값보다 가장 적은 2.25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철저한 소송리스크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⑤ 연금운용리스크의 경우, 전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중소형손해보험사그룹

이 여타그룹보다 연금운용리스크 수준이 낮으며 대형생명보험사그룹의 경우 평균값에 훨씬 초과하는 연금운용리스크수준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보험업계의 경우 수탁기관이 직면한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에 의해 리스크대응 분석결과, ① 운용상품설정리스크의 경우,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는 뚜렷한 통계적 차이가 없지만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에는 유의수준 5%하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형보험회사의 운용상품설정리스크관리 대응수준이 중소형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 ② 언더라이팅리스크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③ 수탁자재설정리스크의 경우, 정량적 검증결과와 정성적 검증결과를 종합한 전체적 차원에서의 검증결과를 보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는 리스크관리 수준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에는 리스크관리 수준차이가 존재함으로써 특히 중소형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제고가 요구된다는 점 ④ 소송리스크의 경우 전체적으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 모두 10%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 수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⑤ 연금운용리스크의 경우,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간, 그리고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 간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수탁기관인 보험회사의 리스크 인식 및 대응실태 등을 퇴직연금제도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보험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운용상품설정리스크, 언더라이팅리스크, 수탁자재설정리스크, 소송리스크, 연금운용리스크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분석 및 통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보험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시장 진출에 적극적이고 퇴직연금리스크관리의 중요성 또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체로 운용상품설정리스크 등 일부 리스크를 제외한 여타리스크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중에서는 대형 생명보험사중심으로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이어서 향후 철저한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인식 및 대응실태 등을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된 후가 아닌 실시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형화된 리스크관리수준과 실태를 비교가능하도록 살펴보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설문문항의 설정과정에서 주관성 및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은행등 타금융기관과의 리스크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